

내가 선택한 길

김정현

나는 18살이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지내고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96년에 부모님을 따라 서울을 떠났고 지금은 무주에서 살고 있다. 식구로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하나 있다. 올해로 학교를 다니지 않은 지 5년째다.

나는 서울의 아담한(?) 초등학교를 다녔다. 한 학년에 네 반밖에 없었으니까. 애들은 전부 구구단과 읽기 쓰기를 떼고 들어왔고, 음악 미술 태권도 등등의 학원과 수학 학습지를 풀고 있었다.

동생이 태어난 다음해, 나는 2학년이 되었다. 그런데 아빠가 서울을 떠나 시골로 가자고 했다. 부모님은 시골로 내려가기로 마음먹었고, 결국 산청에 터를 마련했다. 부모님이 시골로 내려간다고 하셨을 때, 가까이에서 시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두 분이 나에게 할머니 댁에서 살면서 계속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그렇지만 나는 부모님을 따라가기로 했다.

●●● 내가 다닌 시골 작은 학교

산청에서 다닌 학교는 아주 조그마한 분교였다. 교실이 두 개에 선생님이 둘이고 전교생이라 해봐야 모두 6명인 학교였다. 너무 재미있었던 건

김정현 _ 89년생, 산골살이 10년 째이고, 학교를 그만 둔 지는 5년 째다. 학교를 그만 두고 농사도 조금씩 해 보고 있다. 스파게티랑 무협지를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다. sillverdrop@hanmail.net

선생님 한명이 아이 세 명하고 공부를 한다는 거였다. 한 반에 30명이었던 예전 학교와 열배 차이.

학교는 작았지만, 있을 건 다 있었다. 교실이 두 개에 교무실이 하나, 이상한 걸 물 속에 넣어 둔 유리병들이 가득한 과학실, 아담한 운동장, 주사 아저씨도 있었다.

그 곳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학교'가 아니고 친구들을 만나는 곳이었다.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네땀던 것, 세 명이 피구를 한 번 해보려고 노력한것, 여자애들 남자애들 갈려 놀다가도 발야구를 하고 싶으면 전부 모여야 발야구 비슷한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 학교 끝나고 친구네 집에 가서 같이 놀다가 집으로 온 것만 기억나고, 공부했던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안 가도 됐고 학교에서 탄 배를 아이들한테 나누어 주기도 했다.

우리 집 바로 옆에는 학교를 안 다니는 언니 두 명이 살았다. 그 집 언니들은 종교의 믿음 때문에 학교를 안 다녔다. 아니, 학교를 '안 다녔다'기 보다는 말 그대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다. 하루 일과와 일 주일, 한 달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었으니까,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셈이었다.

언니 두 명 다 예쁘고, 착하고, 똑 소리 났다. 나는 언니들한테 시골 생활을 많이 배웠다. 큰 언니는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쳤는데, 혼자 책만 보고 공부해서도 약기를 다룰 수 있다는 게 놀라웠다.

이 언니들을 만난 건, 나중에 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학교를 안 다녀도 푹푹하고, 책만 보고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내게 자신감을 주었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또 다시 이사를 가게 됐다. 이번에는 무주로.

무주에서는 면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됐다. 작은 분교에 있다가 갔기 때문에 그곳이 크게 느껴졌다. 한 반에 30명씩 한 학년에 두 반. 서른 명이 나 되는 반 아이들. ^^;

여자 아이들끼리 쉬는 시간에 고무줄도 넘고 피구도 할 수 있고, 점심 시간에는 뒷문 앞 가렛집에 가서 100원짜리 과자들을 사먹을 수 있고, 가수 이야기를 하고, 학교버스가 있어서 아침에 태우러 오고 학교 끝나면 집까지 데려다 주는 곳.

서울에서 산청의 작은 분교에 갔을 때도 그 곳이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 작은 분교에서 면소재지 학교로 오니까 또다시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 학교는 당연히 가는 곳?

나는 무슨 특별한 이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학교나 제도권 교육에 별다른 불만도 없었다.

공부도 잘 했고, 나를 학교에 쉽게 맞출 수 있었다. 오히려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야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싶었다.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투덜거리긴 했어도, 학교는 당연히 가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다녔다.

그런 내가 학교를 그만둘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6학년 겨울, 아빠가 학교에 왜 다니냐고 물어보면서부터다. 아빠는 나만 보면 심문하는 사람처럼 “학교를 왜 다니냐”는 질문을 하고, 엄마 아빠는 내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아주 미칠 것 같았다. 헤드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려 해도, 노랫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는 귀에 쏙쏙 들어왔다. 왜 우리 집 방문은 한지 문인 걸까? 소리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너무도 잘 들리는 게 원망스러웠다. 도대체 아빠는 겨울 동안 뭘 하셨는지, 확신을 갖고 밀어붙이다시피 했고, 나는 그 밀려가는 느낌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게 더 어렵게 느껴졌다.

그렇지만 아빠는 끈질기게 그 이야기를 하고, 엄마랑 계속 싸워서 결국은 내가 엄마 아빠를 따로 따로 만나서 내가 생각한 바를 말했다. 아빠한테는 시간을 달라고, 한 일 년쯤 다녀보면서 결정하겠다고, 엄마한테는 내 문

제니까 내게 맡겨달라고.

그 당시 나로서는 학교를 그만 둔다고 생각하니 너무 막막했다.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아서 학교를 그만 두는 건 전혀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학교를 그만 두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될 것 같았다.

●●● 그리고 간 중학교... 그만두기로 하다

중학교에 가보기로 했다. 물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야 하고, 학교를 오가는 버스도 없었고, 교복도 맞추어야 했지만 학교를 가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

새벽에 엄마가 깨우면 일어나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하면서 일어나, 밥맛은 없지만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고, 어제 챙겨둔 가방을 들고 어둑어둑한 길을 엄마랑 나서면 꼭 도시락을 잊어버려서 아빠가 “도시락 가져가!”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늦지는 않나 마음 졸이면서 저 아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차 유리 위에 가득한 성애를 카세트테이프 케이스로 뽁뽁 긁어내고 시린 손을 비비면서 학교에 갔다. 학교가 끝나고 돌아올 때도 버스가 없어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와야 했다. 학교와 집은 6km가 넘게 떨어져 있어서 걷는 건 불가능했다.

그런 것 말고는 초등학교 때랑 바뀐 게 없었다. 친구들도 대부분 그대로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 이야기 하는 것도 똑같고, 선배들한테 존대도 안 하고, 일학년 들어가자마자 교복을 입는 것도 아니어서 사복을 입고 학교에 갔었다.

●●● 이제 내 세계는 이 곳이 아니구나

시골 학교의 좋은 점이라고나 할까. 애들이 갑자기 공부에 매달리거나 하지도 않아서 분위기가 초등학교랑 비슷했다.

여기는 시골학교였다. 도시를 따라가려 했다. 공부를 잘했던 애들, 부모가 돈에 여유가 있는 애들은 전주나 대전으로 갔다.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 둘 빠져나가서, 중학교에 올라오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뜸해졌다.

그럼 서울에서 여기로 온 나는 뭘까. 선생님이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가야한다” 는 말을 할 때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서울에 계속 있었으면, 여기보다 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거 아냐?

내가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다. 어차피 공부는 내가 책 보고 하는 걸. 아이들은 나 합해서 2명 빼면 전부 학원을 가고, 괜히 아침저녁 엄마한테 미안해지지만 하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있지만 학교는 놀려고 가는 곳이 아니고.

중간고사 일주일 전쯤이었다. 시험 전이라 친구들이 모두 (-_-;) 열심히 공부를 했다. 나는 시험을 볼 생각이 없었기에 평소처럼 공부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서 떨어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투명한 막 같은 것에 싸여 있는 느낌 같기도 하고. 이제 내 세계는 이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마음먹었다.

결국 나는 봄 소풍을 다녀온 후 중간고사를 보기 전날 그만두기로 했다. ^^*

●●● 잘 해봐라

담임선생님에게 학교를 그만 두겠다고 했다. 당황스러우셨겠지만, 나를 말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해 주셨다. 학교를 그만두기로 한 날, 사탕을 사서 친구들 책상에 하나씩 올려놓고 인사를 했다.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학교를 나왔다. 선생님, 친구들, 언니들이 나보고 “잘 해봐라”라고 했다. 상상 밖의 일이었다. 친구들이랑 언니들이 그러는 것 까지는 이해하더라도 선생님이 “잘 해봐라”라는 말을 하다니!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를 믿고 잘 해보라면서 밀어주시지 않았으면 학교를

그만두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 학교를 그만 두고 나서

처음 일 년은 많이 어색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 싶기도 했다. 바깥에 나가면 좀 의기소침 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갔다.

아침에는 엄마랑 영어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서 교과서들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아빠나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공부를 했다. 이런 저런 책을 읽기도 하고, 산청 살 때 이웃에 살았던 언니들과 편지를 주고받고, 학교 친구들과하고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지냈다.

이 년째에, 고입 검정고시를 봤다. 쉽게 합격했고 중학교를 졸업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졌다.

그 해 8월에는 ‘우리 쌀 지키기 100인 100일 걷기 운동’에 갔다. 그 곳에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 운동을 하는 곳에 아이들이 많을 줄은 몰랐는데.

걷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를 특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이 같이 걷는 걸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나도 내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걸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었다. 한 보름쯤 걸었다. 거기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친구도 많아지고, 매향리에도 가고, WTO가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삼 년째에는 어디에 나가거나 하지 않고 집에만 있었다. 엄마가 놀라워할 정도로. 그리고 고등학교도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고등학교를 간다고 생각해보니까 마땅히 갈 만한 학교도 없고, 집에서 지금처럼 지내는 것보다 더 좋을 건 없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기로 했다.

집에만 있는 대신 인터넷에 들어갔다. 나 같은 애들이 모이는 카페를 찾아서 그 곳에서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고 사귀었다. 인터넷으로 만나니까 아이들마다 사는 곳이 다양해서 제주도 사는 애들도 만났다.

사 년째에 들어서서, '이제 나도 고등학생 나이' 니까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고등 교과서들도 새로 싹 샀다. 계획을 세워 공부하겠다고 마음먹고, 얼마 동안 공부를 했다. 그렇지만 학교와 학원에서 하루에 열 몇 시간씩 공부하는 애들과 나는 같을 수가 없었고, 같을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 '학교 식'의 공부가 아닌 걸 찾아보았다. 우선 언제나 '말라깽이' 소리를 듣는 것에서 벗어나 건강해지자는 생각을 했다. 뭘 하려고 해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부모님이 수도 없이 운동하라는 말을 할 때는 투덜거렸지만, 내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 바로 실천(?)에 들어갔다. 자발성의 놀라움이란.....

그래서 수벽치기를 하시는 분을 찾아갔다. 내가 찾아간 그 곳은 수벽치기를 가르치는 도장이 아니라, 천연염색도 하고, 감잎차도 만드는 곳이었다. 가서 그 곳 일을 하고, 아침저녁 수벽치기를 배우면서 지냈다. 그곳 아저씨는 나 같은 아이들이 오는 걸 좋아하셔서 무척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그 곳 사람들과 같이 먹고 일하니까 식구 같았다. 그 곳에 오는 분들도 사귀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 집에도 가보고, 염색 일도 배웠다. 배우고 나서 집으로 간다니 아저씨가 차비라면서 '봉투' 를 건네주셨다. 내가 배우러 간 거였는데, 차비까지 주셔서 무척 고마웠다.

●●● 나만의 밭

학교를 그만두고, 내 밭을 만들었다. 뽕나무가 있고, 더덕이랑 도라지가 심겨있는 밭이었는데, 곁에다가 콩까지 심어 길렀다. 그냥 하루에 한번씩 밭에 갔다. 식물들을 돌보는 시간이 고요하고 좋았다. 뽕나무에 오디가

열리면 오디를 따고, 더덕 꽃이 피면 실컷 들여다보고….

3년째 되는 해에 내 밭을 옮겼다. 이번에는 푸성귀들을 심었다. 양상추랑 쪽갓이랑 상추랑 양배추랑 시금치를 길렀다. 또 명아주 싹이 쪽갓 옆에 나기에, 뽑지 않고 길렀다. 돌봐주니까 키가 나 보다 크게 자랐다. 그걸로 명아주 지팡이를 만들어 할머니에게 드렸다.

겨울에는 뒷산에 올라가 나무도 하면서 산을 돌아다녔다. 겨울 산처럼 평화롭고 햇살이 아름다운 곳이 또 있을까.

4년째 되는 해에 밭에다가 홍화를 심었다. 여태까지는 엄마가 많이 돌봐주고, 나는 밭에 출근(;) 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확실하게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직접 거름도 저 날랐다. 처음에는 홍화가 영 안 되는 것 같아 속이 상했는데, 꽃이 필 때가 되니 무성하게 자란 홍화 모습에 기분이 좋았다. 날마다 밭에 가서 김도 매고, 홍화한테 이야기도 걸고, 홍화를 계속 바라보기도 하고, 홍화가 태풍에 쓰러지면, 그걸 일으켜 세우기도 하면서 홍화씨를 거두어서 다 갈무리했다. 뿌듯했다. ^^

홍화는 다른 작물보다 일찍 거둔다. 그래서 홍화를 다 거두고 나서 수벽치기를 배우러 갔다.

올해는 참깨나 녹두를 해볼 생각이다.

●●● 원하면 와서 지내면서 배우고 가라

배우려고만 하면 가르쳐 줄 사람은 어디선가 나타난다.

아니 '나타난다' 기보다는, 그림을 그려보겠다고 생각하면 이웃집 언니가 이젤을 주고, 다음날 미대를 나온 부부가 우리 집에 찾아왔다가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보고 도움말을 준다. 기타를 쳐볼까하고 생각을 하면 친구들이 가르쳐 주고, 인터넷에 수많은 악보와 프로그램들이 나를 도와준다. 운동을 배우고 싶어져서 수벽치기랑 태극권을 배우기도 했고.

한 번은 2년 전에 잠깐 만났었던 분께 연락을 했다. 찾아가 그림 그리
는 걸 배울 수 있겠냐고 했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시고 너무 친절하게 가르
쳐 주셨다.

이렇게 기회랑 선생님들이 생겼고, 내가 찾아가서 배웠기에 정말 열심
히 하고, 그 쪽도 열심히 가르쳐 줬다.

지금도 “원하면 와서 지내면서 배우고 가라”는 분들이 많다. 어느 순간
내가 그 분들을 찾을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다. 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다양하고 더 많은 것 같다. 모두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시
고 부담스러울 만큼 열성적이다. _-;;

●●● 새로운 배움

내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 사람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쉽게 가르쳐 준 사
람은?

그 분야에 전문가이신 어른이 아니고, 나보다 두 살 많은 언니였다. 그
언니는 우리 식구들한테 24식 태극권을 가르쳐줬다.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었다. 언니니까 대하기도 편해서 궁금한 건 쉽게 물어볼
수 있었고, 언니는 자신이 예전에 배우던 걸 살려서 어려웠던 건 어려웠다
고 말하면서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또 언니가 틀리더라도 그걸 인정하면
서 고쳐나갔다. 우리 식구들 모두, 언니가 가르쳐 주는 게 좋았다. 또 언니
도 태극권을 가르치는 걸 언니 공부로 삼아서 했기에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서로 배우는 무척 좋은 공부였다.

어른들은 전문적이라서 잘 가르쳐 준다면, 친구들은 무척 쉽고 편하게
가르쳐 준다. ‘가르쳐 준다’는 느낌이 안 들게. 그리고 친구들이 가르쳐 주
는 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어떤 어른들은 가르쳐 주면서 내게 어떤 기대
를 거신다. 그래서 좀 부담스러운데,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편하게

잘 배울 수 있어, 나는 친구들이 가르쳐 주는 게 좋다. 언니들은 세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주고, 동생들은 편안하게 가르쳐 주고, 오빠들은 열성적으로(;) 가르쳐 준다. ^-^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배우는 건 '나'다. 내가 열심히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다. 인터넷에는 끝없는 자료들과,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있다. 내가 찾아서 공부만 하면 된다.

나는 내가 관심이 있는 것들을 찾아 배운다. 또 그걸 배우는 데 투자할 시간도 넉넉하다. 그래서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그것에 푹 빠져서 배울 수 있고, 학교를 안 다니니까 어딘가에 가서 배우는 것도 자유롭다. 나는 너무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다. ^^*

●●● 학생과 청소년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들을 지칭하는 말이 없다. 그냥 "학생!" 하고 부르고, 청소년의 날은 없고 '학생의 날' 만 있다. 심지어 청소년이 스스로를 부를 만한 호칭도 없다.

또 여태까지는 '학생증' 만 있었다. 그래서 청소년이더라도 학교에 다니지 않으면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없었다. 그냥 '학생' 들만 있었다.

이제는 청소년증도 생기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하면 '홈스쿨러' 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인다. 앞으로 '청소년의 날' 이라는 것도 생기고 "학생!" 대신 이 나이의 아이들을 부르는 말이 생겼으면 좋겠다.

●●● 탈학교는 '전염' 된다!

내가 처음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는 나같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람들도 나를 특이하게 바라봤다. 그렇지만 지금은 나처럼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알고, 사람들도 '홈스쿨링'에 대해 아는 것 같다.

내가 나같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서 학교를 안다니는 사람이 많아진 것처럼 느끼는지, 아니면 정말로 사람 수가 많아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람들 수가 많아진 것 같다. 왜냐면 탈학교라는 건 전염(?)되기 때문이다!

나보다 먼저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애들을 좋아한다는 게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결심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 나를 만나고 학교를 그만둔 사람도 많고, 그 사람에게서 이어져서 학교를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다시 이어지고. 도미노처럼.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기만 해도 영향을 받아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다.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은 '존재'하기만 해도 주변에 탈학교를 '전염' 시킨다. ^^;

●●● 나는 홈스쿨러가 아니다

나는 '홈스쿨러'가 아니다. 홈스쿨링을 번역하면 집학교 생활(?) 정도 되는데, 나는 집에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부하는 것도 많고, 집에서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보통 홈스쿨링 하면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를 가르치면서 아이에게 제도권 교육을 시키는 게 떠오른다. 나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홈스쿨러라 부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처럼 사는 사람끼리 우리 이걸 '안 스쿨링'이라고 부르자고 이야기했다. 영어로는 un-schooling이 된다. ^^ 나의 학교니까 my-schooling이 될 수도 있고.

●●● 나에게 친구는...

우선 엄마가 친한 친구! 그리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 가끔 만나고 편지나 메일을 주고받는다. 멀리 떨어져 사니까 같이 여행을 하거나 친구 집에 놀러가거나 한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친구의 친구를 만나게 되거나 우리가 간 곳에 우리 같은 아이들이 와서 그 애들과 친구가 되어서 친구의 수가 늘어난다. 인터넷으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친구’라는 건 ‘같은 나이’라는 뜻이 아니다. 학교 다닐 때는 같은 반 아이가 ‘친구’였지만 지금은 언니도 오빠도 동생들도 친구로 지낸다. 친구라는 건 나이에 얽매일 필요가 없으니까. 서로 공통된 점을 나누고, 이야기 가 통하는 사람이 친구가 아닐까.

또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랑만 놀지 않는다. 친구의 부모님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다. 친구가 바깥에 나가고 친구 부모님과 나만 남아도 서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아니~~

이 글의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땐,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부모님이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신청을 하러 면에 다녀오셨을 때였다. 엄마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온 전화라며 내게 수화기를 건네 주셨다. 나는 부모님 일로 온 전화를 왜 내게 건네줄까 했는데, 알고 보니 부모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나에게 온 전화였다. 같은 날 그렇게 연결된 게 재미있었다.

글을 써 보니, 이것도 내게 다가온 하나의 공부였다.(-아빠 같은 말투 ^^;) 이 글을 쓰면서 나 자신이 많이 정리가 되는 느낌이었다. 원고를 부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자기 색깔이 있고, 다 다르게 산다. 똑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없듯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도, 과정도 다 다양하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내 이야기는 집에서 지내는 어떤 아이의 이야기일 뿐이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다.